‘불온한 생태학’ 이브 코셰 지음

섬뜩한 환경재앙… 타개책은 ‘공정한 탈성장’

섬뜩하다.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 이용과 파괴로 빚어지는 환경 재앙의 위기를 경고한 것이라곤 하지만 절박한 위기감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지구 전체가 병들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전례 없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자연은 타협하지 않고 공짜로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밥값을 치러야 할 때다’ 등 다급한 경고 문구도 적지 않다.

‘불온한 생태학’은 불편한 진실 투성이다.

투발루 섬 2개가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 아래로 잠기고 무분별한 인의 채굴로 남태평양 외딴 섬 나우루가 거대한 광물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는가 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메탄 농도가 자연적 변동 수준을 현저히 넘어섰고 현재 정책과 개발 방식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화석 연료의 이용, 삼림 파괴, 시멘트 제조에 의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탄소 순환주기가 엉망이 됐고 온난화로 북극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여기에 갇혀있던 메탄이 빠져나와 온난화를 가중시키는 ‘눈덩이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지구 역사상 여섯번째로 종의 멸종에 처해 있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는다.

환경 재앙의 징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 믿지도 않고 아무것도 대처하지 않는 태도도 문제삼는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100개가 넘는 다자간 환경조약이 존재하지만 효력도, 업무 협력도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이 미미한 실정, 온실가스로 야기된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시켜 바라보려 하는 각국 대표들의 시각, ‘기후변화협약’처럼 권위있는 의결기구 안에서도 각국 대표들은 환경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경제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채 보여주는 ‘엄청난 광대놀음’을 몇 번이나 지켜봐야 하느냐는 식으로 겉도는 세계 환경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낸다.

프랑스 녹색당 출신으로 환경부장관을 역임한 이브 코셰는 책을 통해 무분별한 자원 이용과 파괴에 대한 자연의 복수 앞에서 ‘지속 가능 성장’이란 얘기는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한다. 현 난관을 헤쳐나갈 지원군이 아닌, 하나의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타개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생각·행동 하나하나까지 바꿔나가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한다. 그러면서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인·집단 차원에서 검소한 생활을 장려하는 ‘공정한 탈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반 일리치, 조르주 바타야, 한스 요나스, 세르주 라트슈 등을 인용해 철학적·경제학적으로 환경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시각과 이미지 등도 여느 환경지침서와 다른 차별화를 엿볼 수 있다.

〈사계절·1만88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는 착한사람인가, 정직하게 돌아보라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댄 애리얼리 지음

은미 아빠는 8살짜리 딸이 짝꿍의 연필 한 자루를 훔쳤다는 내용의 편지를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다.

아빠는 불같이 화를 내며 2주 동안 학교에 갈 때 외에는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벌을 준다.

너무 화가 난 아빠는 벌을 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묻는다.

“연필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지 그랬어? 아빠한테 말하면 되잖아. 그러면 아빠가 회사에서 연필 한 자루가 아니라 몇 다스는 가져다줄텐데 말이야.”

같은 반 친구의 연필 한 자루를 훔치는 행위가 나쁜 짓이라는 건 알면서 회사 사무실에 있는 연필 한 다스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범하는 ‘부정행위’의 복합적·심리적 원인을 파고들고 있다. 저명한 행동경제학자인 댄 애리얼리는 다양한 실험 내용을 제시하면서 착한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과 이유를 분석한다.

금융회사의 부정행위 사례들이나 골퍼들의 부정행위 심리, 자아가 고갈됐을 때나 짝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은 불편하면서도 재미있게 읽힌다.

저자는 무엇이 착한 보통사람들에게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지 탐구하는 한편,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것을 제안한다. 〈청림출판·1만6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편지와 그림으로 만나는 100년 전 동양여행

‘키스, 동양의 창을 열다’

엘리자베스 키스 지음

“한국 사람들은 예절이 아주 바르답니다. 자기네가 먹는 대로 주는 건 예의가 아니니 외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삶은 달걀 네 개를 놋그릇에 담아 내오더군요. 얼음같이 찬 달걀을 놋숟가락으로 먹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키스, 동양의 창을 열다’는 100여 년 전,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여류화가 엘리자베스 키스(1887~1956)가 한국을 비롯한 동양 곳곳을 여행하며 보고 겪었던 일들을 묶어낸 책이다.

당시 언니에게 보낸 편지와 그림이 담겨 있으며 동시대에 동양을 찾았던 다른 서양인들의 기록과 달리, 동양 문화에 대한 동경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중국·필리핀·일본 등을 여행하며 그린 작품과 편지글은 동양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한국식 만찬에 초대받아 예의를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진짜 한국식답게 음식이 온통 빨간 고추로 뒤덮여 있더군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려 하자 초대한 사람이 여간 재미있어 했다”고 적는 등 외국인이 한국에서 접한 낯선 체험 사례 등은 재미있기 읽힌다.

오늘날 동양에서 살아가는 우리조차 잘 몰랐던 우리 조상의 생활상을 서양인의 눈을 통해 엿보는 즐거움도 있다. 〈책과함께·2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결혼 10년 서른아홉 유부녀의 ‘사건’

‘사랑이 달리다’

심윤경 지음

결혼 10년차인 서른아홉의 유부녀인 혜나는 트럭 운전사부터 시작해 외과 병원장까지 된 돈 많은 아버지의 막내딸로 남부럽지 않게 살다 아버지가 갑자기 어린 여자를 만나 딴살림을 차리면서 생전 처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 대기업에 근무하는 공대생 출신 남편이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나고, 남편을 따라가지 않을 핑계도 필요하던 참에 부랴부랴 오빠 친구가 하는 산부인과에 보육실 직원으로 취직하는데 거기에서 오빠 친구인 의사 정욱연에게 매력을 느끼면서 ‘사건’이 커진다.

심윤경의 신작 장편소설 ‘사랑이 달리다’는 매일 아침 주부들을 겨냥한 막장 드라마와 비슷한 스토리인데도, 눈물·배신이라는 단어 대신, 시트콤 분위기가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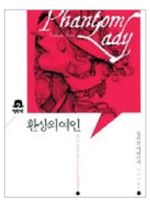
〈문학동네·1만2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다시 시작되는 전설의 미스터리

환상의 여인 외

윌리엄 아이리시 외 지음



세계 미스터리 거장들의 명작을 소개하는 추리소설 전집 ‘미스터리 책장’시리즈로, 윌리엄 아이리시의 ‘환상의 여인’, 피터 러브시의 ‘가짜 경감 듀’, 헬렌 매클로이의 ‘어두운 거울 속에’등 세 권이 함께 나왔다.

윌리엄 아이리시가 쓴 ‘환상의 여인’은 ‘Y의 비극’,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와 더불어 세계 3대 추리소설로 꼽히는 작품. 아내 살인범으로 몰린 남자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환상의 여인’을 찾아나서는 내용이다. ‘가짜 경감 듀’는 영국추리작가협회 골드대거 수상작으로 루시 타니아호 어뢰 침몰사건, 크리펜 박사 살인사건 등 실제 사건에 대한 치밀한 조사와 사실적 묘사가 두드러진다. ‘어두운 거울속에’는 정신과 의사 탐정인 배질 윌링 박사가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 사건 해결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그려진다.

〈엘릭시르·1만1800원~1만38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불행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없었을 뿐

‘비행운’

김애란 지음

최연소 한국일보문학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린 소설가 김애란은 첫번째 단편집 ‘달려라 아비’와 두번째 단편집 ‘침이 고인다’를 통해 평단의 탄탄한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열일곱의 나이에 여든의 신체 나이로 급속하게 늙을 수밖에 없었던 아름이의 삶을 그린 첫번째 장편 소설 ‘두근 두근 내인생’으로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

김애란이 세번째 소설집 ‘비행운’을 펴냈다. 작품집 제목으로 삼은 ‘비행운’은 특정 작품의 제목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동경하는 ‘비행운’(飛行雲)과 삶의 발목을 잡는 ‘비행운’(非幸運)을 일컫는 말이다.

그녀의 소설 속 등장인물에게 하루의 일상이 버거워 보인다. 큰 사건 때문일 수도 있고, 사소한 일일 때도 있지만 그들에게 행복은 멀어보인다.

‘고가의 핸드백보다 훨씬 싸고 조촐한 낭비인데도 유독 엄격한 눈으로 바라본’ 손톱관리를 하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큐티클’ 속 주인공이나 오랜만에 걸려온, 한때 좋아했던 선배의 전화를 받고 그를 만나지만 결국은 심한 상처를 입고마는 ‘너의 여름은 어떠니’의 주인공들이 다 그런 모습이다.

소설집에는 인천공항의 청소 용역자 기옥씨의 삶을 그린 ‘하루의 축’, 젊은날의 방황을 그린 ‘서른’, 불행한 삶과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 ‘물속 골리앗’ 등 모두 8편이 실려 있다. 〈문학과 지성사·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안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 그룹 울랄라세션의 리더 임윤택이 출간한 자전 에세이. 춤·노래·패션·인연·노력·생각 등 6개 장으로 나눠 지금까지 ‘긍정의 힘’으로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담았다. 춤과 노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삶을 소개하면서 “내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해냄·1만3800원〉

▲히다리 포목점 = 영화 ‘카모메 식당’을 만든 일본 감독 오기가미 나오코의 첫 소설집. 오래된 섬유거리에 있는 히다리 포목점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펼쳐진다. 저자는 포목점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통해 주위를 둘러보면 찾을 수 있는 탈출구를 표현하고 있다.

〈푸른숲·9000원〉

▲다시 쓰는 서양근대철학사 = 1989년 창립한 진보적 철학자들의 단체인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한국 철학자의 시선으로 엮은 철학사. 급박하게 돌아가는 서양 근대를 설찰하고 베이컨, 갈릴레이, 뉴턴 부터 데카르트, 스피노자, 루소, 헤겔에 이르기까지 각 철학자 사상이 어떻게 시대 화두가 됐는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오월의 봄·1만7000원〉

▲신은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 자연학자인 이브 파칼레가 무신론적, 유물론적 시각으로 우주의 생성 원리를 철학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신(神)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연현상이 우주와 생명을 빚어낸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저자는 빅뱅으로 우주가 생성된 137억 년 전부터 세포가 형성된 40억 년 전, 단순 생물이 진화하기 시작한 8억년 전 등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 가며 생명의 기원을 찾아나선다.

〈해나무·2만3000원〉

▲지리산 둘레길 = ‘시작과 끝을 잇는 700리 걷기 여행’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전남·북, 경남의 5개 시·군, 117개 마을을 잇는 총길이 274㎞에 이르는 지리산 둘레길을 발품팔아 쓴 여행기이면서 답사기. 전라도 닷컴 기자를 지내고 2007년 ‘지리산 둘레길’을 펴내기도 했던 이혜영씨가 2부로 나눠 지리산과 둘레길에 대한 역사, 문화, 사람살이 등을 그려냈다. 둘레길 구간별 일러스트 지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담은 ‘지리산 둘레길 절대 가이드북’을 별책으로 엮었다.

〈우공이산·1만8000원〉

▲도시락의 시간 = 아베 나오미와 아베 사토루가 도시락을 매개로 나눈 추억, 인생,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도시락으로 만나는 가슴 따뜻한 인생이야기’라는 부제에 맞게 해녀·역무원·고등학생·원숭이 재주꾼·항공기 정비사까지 보통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해 도시락에 담긴 일상 이야기를 잔잔하게 풀어낸다. 주인공들의 어색한 사진 등은 미소를 짓게 한다.

〈인디고·1만3800원〉

어린이 책꽂이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 ‘가방 들어주는 아이’, ‘아주 특별한 우리 형’ 등의 동화와 청소년소설을 써온 고정욱씨의 두번째 성장소설. 까칠한 문제아 재석이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2009년작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의 후속편. 전편에서 불량서클에서 탈퇴하고 새롭게 태어난 재석이가 연예기획사 사장과 스폰서의 농간으로 위험에 빠진 연예인 지망생 친구들을 돕는 과정을 담았다.

〈애플북스·1만1800원〉

▲명문 프라이드치킨 초등학교 = 일본 작가 다나카 시게카즈가 쓴 코믹동화. 희한한 춤에 푹 빠진 교장 선생님, 코끼리 타고 등교하는 아이, 폭발하는 장치를 발명하기 좋아하는 아이들의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가 재미있다. 다람쥐 챗바퀴 돌 듯 학원을 오가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잠시 머리를 식히면서 읽어볼만하다.

〈 느낌이있는책·8000원〉

▲양심팬티 =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작가 마이클 에스코피어가 바른 인성을 지도하기 위해 내놓았다. 레옹이 양심 친구를 만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고 착하게 변화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담았다. 정직과 양심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기본 인성이라는 깨달음을 준다. 〈꿈터·1만2000원〉

▲나랑 같이 놀래? = 서로 다른 두 친구 말괄량이 꼬마와 고양이가 싸우고 화해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재미있게 엮어냈다. 연필선으로 자연스럽게 그린 캐릭터와 파스텔 톤 색연필로 칠한 그림이 따뜻하면서 세련됐고 여백을 살려 그림만으로도 주인공 감정과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푸른숲주니어·1만1000원〉

▲광화문 해치의 모험 = 광화문에 설치된 석상 해치가 구한말 일본 도적들에게 납치돼 잡혀가다가 독도에 사는 고래 도움으로 살아난 뒤 자신이 살던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담아냈다. 정의와 청렴의 동물이면서 아이들에게는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인 해치를 주인공으로 해 눈길을 끈다. 〈고인돌·1만3000원〉